

## 한-EU FTA 발효 이후 양자간 투자통계의 비교분석

조양현 ■ 한국수출입은행\*

###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소비활동 정체, 재정지출 한계, 수출 부진 등의 경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침체된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기업의 투자증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협력 대상지역인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통계를 비교분석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과 한-EU FTA의 경제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한-EU FTA 발효 이후 2011~2020년 기간, 양자간 투자실적의 실증분석을 위해 FDI 유출 및 유입의 통계자료를 국가와 산업에 관하여 비교하는 분석방법론을 채택했다. 2011~2015년 기간,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유출실적(누계기준)은 171억 달러, 투자유입실적(누계기준)은 185억 달러로 투자수지는 1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6~2020년 기간에는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유출실적이 397억 달러, 투자유입실적은 272억 달러로 투자수지는 125억 달러 적자로 전환되었다. 한-EU 투자통계의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국가별 및 산업별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유출실적의 경우 룩셈부르크, 영국 등의 국가,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등의 산업에 집중된 반면, 우리나라에 대한 EU 경제권의 투자유입실적의 경우 몰타, 네덜란드 등의 국가, 금융 및 보험, 화학제품 등의 산업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EU 투자통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면, 한-EU FTA 발효 이후 양자간 투자실적이 특정 국가 및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투자 다변화가 필요하며,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는 노하우 및 기술 이전, 생산 및 고용 유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므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정책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체계적인 추진전략이 더욱 요구된다.

\*주제어: 한-EU FTA, 한-EU FDI 통계, FDI 유출, FDI 유입

## I. 서 론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요인(GDP의 수요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 투자, 재정지출 및 무역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제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2020~2021년 소비는 가계지출 부담, 재정지출은 예산확보 한계, 무역은 수출여건 위축 등으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상황은 악화된 상태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투자 지연 및 신규투자 보류가 지속된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0년부터 세계 전역에 걸쳐 경제·사회적인 봉쇄조치가 취해지면서 역외투자(off-shoring)보다는 역내투자(on-shoring, near-shoring), 투자회귀(re-shoring) 및 투자축소(de-leveraging) 등 투자패턴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세계 전역의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입실적(FDI inflows 또는 inward FDI)은 2019년 1조 5,302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9,989억 달러로 35%나 감소했으며, 동기간 중 유럽지역에서는 3,626억 달러에서 725억 달러로 무려 8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UNCTAD 202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대내외적 변수(경제성장 기여도)에 모두 연계되어 있고 최근 급격한 변동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투자통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FDI 투자통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기업의 투자동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기업 자체의 발전가능성 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경제성장 추세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상태이므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의 투자증대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둘째,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둔화 요인이 되고 있는 소비활동 정체, 재정지출 한계, 수출 부진 등의 경제 구조적인 문제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수 또는 수출의 제한으로 침체된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활동 등으로 경기가 호전되어야 한다. 셋째, 국내기업 및 외국기업의 투자동향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체질 및 투자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산업에 관한 투자 추세와 패턴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수립할 수 있다. 한편,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경제권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다양한 국가 단위의 분석이 가능하고, 세계 전체에서 가장 진전된 지역경제 통합체(regional economic bloc)이므로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EU 경제권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지역이

면서, 동시에 주요 투자지역이다. EU 경제권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3대 투자지역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투자유출실적에서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비중은 15.9%(USMCA 32.0%, ASEAN 17.3%)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유입실적(FDI inflows)에서 EU 경제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34.4%(USMCA 18.4%, ASEAN 16.5%) 수준에 달한다. 특히 EU 경제권의 정치경제적 상황은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2010~2012년 남유럽(그리스·포르투갈·스페인·이탈리아) 중심의 유로존 재정위기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도 매우 불안정한 변동장세를 보였다. 또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발효(2015년 12월 13일, 공식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우리나라의 무역 및 투자의 최대 이슈로 대두되었고, 2016~2020년에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한-영 FTA 체결 등의 추가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EU FTA 발효 이후 한-EU FDI 투자통계에 관한 연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며, 한-EU FTA 발효로 기대되었던 양자간 FDI 증대 등의 경제효과가 한-EU FTA가 발효된 지 10년의 기간에 걸쳐 실제로 나타났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대상 지역인 EU 경제권에 대하여 한-EU 투자통계를 비교분석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론(I장), 주요 선행연구(II장), 한-EU 투자통계의 국가·산업에 관한 비교분석(III장), 결론 및 시사점(IV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주요 선행연구

### 1.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해외직접투자(또는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면서 전통적인 학설로 정립되고 있는 경향이다.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국제무역·금융의 시장분석 관점에서 살펴보면, 국제금융시장의 금리(자본의 한계생산성) 차이로 저금리 국가에서 고금리 국가로 해외자본이 이동한다는 국제자본이동론(McDougall 1960), 국

제자본시장의 외환위험에 따른 환율(통화프리미엄) 격차로 제품생산의 특허를 해외투자자에 적용하면서 해외생산으로 관세장벽 회피가 가능하다는 통화지역이론(Aliber 1970), 현지법인을 설립한 미국 제조업체의 특성에 대한 동태적 분석(industry-specific, firm-specific analytical methods)을 바탕으로 수출과 해외투자 관계의 경험사례를 실증 분석한 결과, 제품개발의 단계가 진행될수록 해외시장에서 초기단계의 기술적 우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마케팅 및 생산시설 확충 등으로 수출보다는 해외투자 유인이 발생한다는 수출대체론(Horst 1972), 투자유치국(host countries: 캐나다, 호주 투자사례)의 입장에서 제조업의 해외투자자에 따른 현지법인의 법인세 수익 및 자원배분의 생산성 이전(효율성·기술)에 관한 과급효과(spill-over) 연구(Caves 1974), 현지생산 조건의 생산비용(absolute comparative costs)을 기준으로 시장생산요소 가격의 비교열위로 현지생산이 선호된다는 생산요소의 상대가치론(Hirsh 1976), 무역축진의 결과로 국가간의 비교열위의 산업에서 비교우위의 산업으로 전이되어 투자가 가속화된다는 무역보완론(Kojima 1978), 해외투자기업의 시장 개척, 원재료 절감, 생산성 향상, 기술 및 경영의 노하우 이전 등을 위한 시장선점론(Eiteman & Stonehill 1989) 등으로 요약된다. 또한, 기업행태 및 투자전략의 관점에서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본시장의 기능적 통합과정(무역·시장)을 분석하면서 기업의 사업영역 확대로 인해 다국적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는 기업성장론(Kindleberger 1963), 제품 생산의 성숙단계(maturing product stage)에서 국내생산의 감소를 해외투자의 수요증가로 대체 가능하다는 제품수명주기이론(Vernon 1966), 실질자본의 이전효과 및 현지법인에 의한 산업형성 등의 시장구조를 고려하여 과점 기업의 제품차별의 수준에 따라 생산라인의 해외이전(horizontal investment) 및 원자재·부품의 해외생산(vertical investment)이 가능하다는 연구(Caves 1971), 투자대상국과 투자기업간의 관계분석에서 투자대상국의 문화 및 지리적 거리의 불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마케팅 강화, 현지시장에서 설비·부품·원자재 구매 및 조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능력 제고 등이 요구된다는 기업전략이론(Kindleberger 1972), 광범위한 지적 체계를 보유한 다국적기업의 경우 국제무역을 통한 기술이전으로 해외영업(multinational operations)이 가능하다는 내부화이론(Buckely & Casson 1976), 기업 특유의 우위요소(owner-specific advantages)를 보유한 독과점 기업의 시장 통제 및 이윤 극대화를 위한 독과점적 우위론(Hymer 1976), 해외생산구조 및 정책대응(efficiency, equity, sovereignty) 차원에서 다국적기업 특유의 우위요소가 독점적 지위(ownership), 내부화(internationalization) 및 생산입지(location)에 기인한다는 절충적체계론(Dunning 1981), 해외생산의 주요 형태를

시장추구(import substituting), 자원추구(supply oriented) 및 효율추구(rationalized investment)로 분류하여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핵심기술 및 자산 관리능력, 시장·산업 변화에 대한 사업유연성 등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전략에 관한 연구(Dunning 1988), 기업성장의 요인인 지식 이전을 전제로 기술적 결합과 조직의 효율성 우위에 의한 단독투자결정요인을 분석한 다국적기업 진화론(Kogut & Zander 1993), 신흥투자시장의 경험적 분석에서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글로벌 전략보다는 기업 특유의 우위요소(firm-specific advantages)를 활용하여 역내 경제에 적합한 현실적 투자전략과 투자대상국의 규제에 대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다국적기업의 국제비즈니스 전략에 관한 연구(Rugman 2010) 등 모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이론 및 학설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투자 결정요인의 관점에서 투자대상 지역 및 국가 등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게재되고 있다. 예를 들면, 권철우·정봉걸(2010)은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에서 투자대상국의 기업경영여건이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는지를 실증 분석한 결과, 투자대상국의 시간당 노동비용, 기술수준, 경제규모 등 경제적 요인이외에 기업경영여건도 해외직접투자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분석했다. 김성기 외(2011)는 EU 국가별 해외투자 결정요인분석(VECM 모형)에서 입지여건, 정보통신기술 투자(GDP 비중), 사회하부구조(통신·인터넷 보급률 등)가 (+)관계의 유의적인 설명변수로 분석했다. 박영렬·양영수(2011)의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사례연구(패널분석)에서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시장 및 전략적 자산 추구,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시장 추구(절대적 시장크기, 시장성장률), 전략적 자산 및 효율성 추구를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유치국의 FDI 투자에 대한 개방성, 투자국과의 교역량이 해외직접투자와 양(+)의 유의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성·김혜미(2018)는 2012~2015년, 현지법인의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연구개발 비중, 운송비용, 산업별 비교우위 및 유효세율은 (+)의 효과, 현지 법인세율 차이는 (-)의 유의적 효과를 보였으며, 중력변수 모형인 거리와 시장 규모는 각각 (-)과 (+)의 추정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조문희 외(2019)는 2005~2017년 기간 발효된 우리나라의 FTA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 우리나라의 FTA가 해외직접투자 유출실적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해 모두 유의적이었으며, 선진국으로부터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실적 증가에도 긍정적 기여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했다.

## 2. 한-EU FTA의 경제효과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에서는 FTA 체결과 관련하여 FTA의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EU 경제권과의 FTA 효과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한-EU FTA 발효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EU FTA 발효 이후 한-EU 투자실적 및 양자간 투자통계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EU FTA가 2010년 5월에 체결되고 2011년 7월에 잠정 발효되면서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최대 무역·투자이슈로 대두되었다. 한-EU 수출 및 투자 등 경제효과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홍중(2005)의 우리나라와 EU의 교역구조에 관한 연구에서는 관세장벽과, 무역구제조치, 기술적 조화 및 표준화 등 광범위한 비관세장벽을 해소해야 할 상황이며, 한-EU FTA 체결로 양자간 GDP의 증대, 교역 및 투자의 활성화 등 거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비관세장벽 등의 분야에 관한 합의를 통해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조미진·김태황(2012)은 한-EU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특혜관세를 활용한 단기적 성과분석(수출입 활용률 측정)에서, 우리나라 수출입 상품의 다변화를 통해 소비자 후생의 증대와 생산자 이익의 증대가 기대되기 때문에 EU 회원국의 시장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협력 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Lakatos & Nilsson(2017)은 2005~2014년 기간, 한-EU 월별 수출실적 통계를 비교분석하면서 한-EU FTA 체결의 협상(negotiation), 시작(initialling), 발효(entry into force) 단계를 구분하고, 관세인하 등 수출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수출시장 확보의 장점으로 인해 EU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실적은 현저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수출증가에 대한 기대효과는 한-EU FTA 발효 시점보다 더 일찍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 발효에 따른 투자실적 및 한-EU FDI 투자통계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미아(2016)는 1999~2014년 기간, 한-EU FTA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실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EU FTA는 우리나라의 EU 경제권(EU-8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출실적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EU 경제권(EU-10개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입실적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유태·남현정(2016)은 2001~2013년 기간 EU-28개국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한-EU FTA 발효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출실적이 급격히 변동하고 있고, 해외직접투자 누적규모(유로존 대상)도 국가별로 불균형한 양

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가입지우위로 인한 수직적 해외직접투자 형태가 유발되었다고 분석했다. 김태황·조정환(2021)은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 유출실적(2000~2019년)과 EU 경제권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유입실적(2010~2019년)은 양자간 상품 수출실적에 보완관계를 보였지만, 한-EU FTA의 발효는 양자간의 교역 증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원회(2019)는 제1차(2011~2015년) 한-EU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에서 한-EU FTA 발효 이전(2006~2010년)과 이후(2011~2015년)의 투자실적(Stock 기준)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연평균)는 7%에서 19% 증가했으며, EU 경제권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연평균)는 5%에서 8% 증가한 것으로 평가했다.

### Ⅲ. 한-EU 투자통계의 국가·산업에 관한 비교분석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한-EU 투자실적을 연도별(2011~2020년), 국가별(EU-28 회원국), 그리고 산업별(한국표준산업분류(KSIC: Korean Standard of Industry Classification) 기준) 통계를 반영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한-EU 투자실적에 관한 통계자료의 접근방법 및 발표기관(raw data 생산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석대상 기간의 경우,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부터 브렉시트가 최종 결정된 2020년까지 10년(2011~2020년) 기간의 양자간 투자실적을 그 대상으로 한다. 특히 우리나라(산업통상자원부)와 EU(집행위원회)는 한-EU FTA 이행상황에 관하여 5년마다 평가하면서 연도별, 국가별 및 산업별 투자추이를 제1차 평가연도(2011~2015년)와 제2차 평가연도(2016~2020년)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고 있으므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분석대상 기간에 반영될 수 있는 통계자료의 경우,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유출실적(FDI outflows)에 관한 자료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해외직접투자통계(투자금액 기준), EU 경제권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유입실적(FDI inflows) 실적에 관한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투자통계(도착 기준)를 기준으로 반영한다.<sup>1)</sup> 또한, 우리나라 및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통계의 비교분

1)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실적 통계는 증권투자(지분), 대부투자(채무상품), 영업비용 투자(지점·사무소) 및 역외금융을 포함한 총투자금액,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실적 통계는 송금신고액을 반영한 총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다.

석을 위해 UN 무역개발협회의(UNCTAD)<sup>2)</sup>의 FDI 통계분석자료(World Investment Report) 및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EU 통계자료(Eurostat Database)를 추가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그런데, 한-EU FTA 발효 이후 양자간 투자효과를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EU FTA의 영향효과 분석을 위해 경제적 기대효과 분석(예상 시나리오 등)보다는 한-EU FTA 발효 이후 실증분석의 관점에서 양자간 투자통계(2011~2020년)를 국가 및 산업에 대하여 비교분석하는 접근방법을 추진하고자 한다.<sup>3)</sup> EU 집행위원회는 UNCTAD 투자통계를 보완하기 위해 EU 기준의 FDI 통계에 대해서는 유럽통계청(Eurostat)(Balance of Payment-International Transactions), 우리나라에 대한 FDI 통계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자료(database)를 추가적으로 추계하고 있다.<sup>4)</sup>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투자유출실적 및 투자유입실적 통계는 우리나라 해외투자통계의 원천자료이므로 기초적인 해외투자정보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다만 해외투자통계를 EU 경제권 등 국제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UNCTAD 투자통계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1. 한-EU 투자통계 실증분석

### 1) 연도별 투자통계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부터 브렉시트가 결정된 2020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와 EU 경제권의 양자간 투자통계(포트폴리오투자 제외)에 대하여 2011~2015년(제1차 한-EU FTA 이행상황 평가기간)과 2016~2020년(제2차 한-EU FTA 이행상황 평가기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표 1> 참

2) UNCTAD의 FDI 통계는 지분투자, 채무상품 및 수익재투자를 포괄한 총투자금액에서 투자회수액을 차감한 순투자금액을 기준(자본수지 반영)으로 작성된다.

3) 한-EU FTA 실증분석에서 기초적으로 활용되는 투자통계(원천자료)가 일정 기간 확정되지 않고, 수시로 변동되고 있어 통계분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즉, 한-EU 투자통계가 매년 보정(수정 및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연도별, 국가별 및 산업별 투자통계의 일관성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4) EU 집행위원회는 투자통계의 오류 및 데이터 부족 등으로 인해 한-EU FTA 발효의 양자간 투자유입(FDI Inflows) 증대 요인에 대한 유의적인 관계를 도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2019, 90-96).



조). 왜냐하면, 한-EU FTA 발효 이후 EU 집행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5년 단위로 양자간 한-EU FTA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1~2015년 기간,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실적은 2011년 38억 달러에서 2015년 24억 달러로 감소했고, 연평균 투자실적은 34억 달러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대한 EU 경제권의 투자실적은 2011년 27억 달러에서 2015년 46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연평균 투자실적은 37억 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동 기간 중 양자간 투자총액(유출입실적 합계)은 2011년 65억 달러에서 2014년 80억 달러로 증가했으나, 연평균 투자총액은 71억 달러 수준이며, 투자수지(=유입실적-유출실적)는 2011~2013년의 적자(연평균 6억 달러)에서 2014~2015년에는 흑자(연평균 17억 달러)로 전환되었다. 2016~2020년 기간,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실적은 2016년 36억 달러에서 2019년 115억 달러로 급증하면서 연평균 투자실적은 79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코로나 위기에 직면한 2020년에는 88억 달러로 감소했다. 동 기간 중 EU 경제권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실적은 2016년 39억 달러에서 2019년 72억 달러로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39억 달러로 급감하면서 연평균 투자실적은 54억 달러로 위축되었다. 양자간 투자총액은 2016년 74억 달러에서 2019년 18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127억 달러로 감소했으며, 투자수지는 2016~2017년의 흑자(연평균 6억 달러)에서 2018~2020년의 적자(연평균 46억 달러)로 전환된 상태다. 2011~2015년 기간과 2016~2020년 기간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실적(누계 기준)은 171억 달러에서 397억 달러로 132% 증가했고, EU 경제권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실적(누계 기준)은 185억 달러에서 272억 달러로 47% 증가했으나, 투자수지(누계 기준)는 14억 달러의 흑자에서 125억 달러의 적자로 전환되었다. 부연하면, 2011~2020년 기간, 한-EU 투자규모는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EU 경제권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보다는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추가적으로 한-EU FTA 발효 이전과 이후의 양자간 투자통계를 비교해보면, 2006~2010년 기간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실적(누계기준)은 171억 달러, EU 경제권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실적(누계기준)은 209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즉, 2011~2015년 기간, EU 경제권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실적은 2006~2010년 기간의 투자실적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한-EU 연도별 투자실적 추이(2011~2020년)

단위: 백만 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누계
한국→EU	3,777	3,720	3,774	3,431	2,428	17,130
EU→한국	2,702	3,072	3,556	4,612	4,556	18,498
투자수지	-1,075	-648	-218	1,181	2,128	1,368
투자총액	6,479	6,792	7,330	8,043	6,984	35,628

  

	2016	2017	2018	2019	2020	누계
한국→EU	3,587	5,771	10,102	11,497	8,756	39,713
EU→한국	3,858	6,711	5,605	7,150	3,920	27,244
투자수지	271	940	-4,497	-4,347	-4,836	-12,469
투자총액	7,445	12,482	15,707	18,647	12,676	66,957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1; 산업통상자원부 2021.

한-EU 투자실적을 우리나라의 투자실적과 비교해보면(〈표 2〉 참조), 2011~2015년 기간, 우리나라의 투자유출실적(총액 기준)은 2013년 312억 달러에서 2014년 286억 달러로 감소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투자실적에서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비중은 2011~2014년 12% 수준에서 2015년에는 8% 수준으로 급락했다. 반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유입실적(총액 기준)은 2011년 67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167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EU 경제권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비중은 최저 28.7%(2012년), 최고 40.6%(2011년), 누적평균 32.9%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6~2020년 기간, 우리나라의 투자유출실적은 2016년 404억 달러에서 2019년 643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 위기로 549억 달러로 위축되었으며, 동 기간 중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비중은 최저 8.9%(2016년), 최고 19.7%(2018년), 누적평균 15.5%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유입실적은 2016년 109억 달러에서 2018년 175억 달러로 증가했으나 2019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비중은 최저 32.1%(2018년), 최고 53.4%(2019년), 누적평균 40.7%로 나타났다. 2011~2015년 기간과 2016~2020년 기간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투자유출실적에서 EU 투자비중(누적평균 기준)은 11.5%(299억 달러)에서 15.5%(512억 달러)로 상승했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유입실적에서 EU 투자비중(누적평균 기준)도 32.9%(113억 달러)에서 40.7%(134억 달러)로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투자실적(유출입 합계)에서 한-EU 투자비중은 상승추세를 보였다.

〈표 2〉 우리나라의 FDI실적 및 한-EU 투자비중 추이(2011~2020년)

단위: 백만 달러, %

	2011	2012	2013	2014	2015	누적평균
FDI 유출 (EU 비중)	29,579 (12.8)	29,694 (12.5)	31,175 (12.1)	28,646 (12.0)	30,382 (8.0)	29,895 (11.5)
FDI 유입 (EU 비중)	6,656 (40.6)	10,719 (28.7)	9,889 (36.0)	12,349 (37.3)	16,679 (27.3)	11,258 (32.9)

  

	2016	2017	2018	2019	2020	누적평균
FDI 유출 (EU 비중)	40,356 (8.9)	44,865 (12.9)	51,383 (19.7)	64,297 (17.9)	54,908 (15.9)	51,162 (15.5)
FDI 유입 (EU 비중)	10,851 (35.6)	13,816 (48.6)	17,451 (32.1)	13,395 (53.4)	11,408 (34.4)	13,384 (40.7)

주: (괄호)는 한-EU 투자실적에서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비중.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1; 산업통상자원부 2021.

## 2) 국가별 투자통계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국가별 투자유출실적(투자금액 기준)을 살펴보면 (<표 3> 참조), 2011~2015년 기간 투자규모(누계 기준)가 10억 달러 이상인 국가는 네덜란드·영국·룩셈부르크·아일랜드·벨기에·프랑스·독일(7개국)이며, 1억~10억 달러인 국가는 스페인·슬로바키아·이탈리아·폴란드·키프로스·루마니아·체코·불가리아(8개국)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리스·덴마크·리투아니아·스웨덴·슬로베니아·에스토니아·오스트리아·크로아티아·포르투갈·핀란드·헝가리(11개국)에 대해서는 1억 달러 미만의 저조한 투자실적을 보였으며, 라트비아·몰타(2개국)에 대한 투자는 전혀 없었다. 동 기간 중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비중(<표 1> 비교)이 10% 이상인 국가는 네덜란드(29.5%), 영국(16.4%), 룩셈부르크(11.9%), 아일랜드(10.7%)이며, 유로존 Big3(독일·프랑스·이탈리아)에 대한 투자비중은 독일 5.9%, 프랑스 7.0%, 이탈리아 1.4%로 나타났다. 2016~2020년 기간, 투자규모(누계 기준)가 10억 달러 이상인 국가는 룩셈부르크·영국·아일랜드·프랑스·네덜란드·폴란드·독일·헝가리·오스트리아·벨기에(10개국)이며, 1억~10억 달러인 국가는 스페인·체코·이탈리아·루마니아·슬로바키아(5개국)로 집계되었다. 동 기간 중 우리나라는 그리스·덴마크·라트비아·리투아니아·몰타·불가리아·스웨덴·슬로베니아·에스토니아·크로아티아·키프로스·포르투갈·핀란드(13개국)에 대해서는 1억 달러 미만의 저조한 투자실적을 보였으며, 2011~2015년 기간과는 달리 EU-28 회원국을 대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 투자실적을 기록했다. 2016~2020년 기간,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비중(<표 1> 비교)이 10% 이상인 국가는 룩셈부르크(28.3%), 영국(20.7%)이며, 유로존 Big3에 대한 투자비중은 독일 5.3%, 프랑스 7.0%, 이탈리아 1.0%로 나타났다. 2011~2015년 기간과 2016~2020년 기간을 비교해보면, 2016~2020년 기간, 투자실적이 5억 달러 이상 증가한 국가는 룩셈부르크·영국·폴란드·아일랜드·프랑스·헝가리·오스트리아·독일(8개국)이며, 네덜란드 투자실적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투자비중이 7.0%에 달했다. 2011~2020년 기간,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실적에서 투자비중(누계 기준)이 10% 이상인 주요 투자대상국에는 룩셈부르크·영국·네덜란드(3개국)이며, 룩셈부르크·영국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었다.

〈표 3〉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국가별 투자유출실적 추이(2011~2020년)

단위: 백만 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그리스		0	1	1	4
네덜란드	799	1,297	1,754	783	413
덴마크	0	0	43	27	3
독일	276	148	272	87	224
라트비아					
루마니아	5	51		54	78
룩셈부르크	63	123	411	1,191	251
리투아니아	0				
몰타					
벨기에	350	305	179	343	24
불가리아	57	60	4		0
스웨덴	3	0	3	6	6
스페인	39	348	78	71	16
슬로바키아	31	212	16	15	9
슬로베니아					2
아일랜드	689	718	116	202	100
에스토니아			0		
영국	1,326	258	609	321	294
오스트리아	6	0	0	5	41
이탈리아	13	13	13	190	9
체코	12	3	118	5	7
크로아티아				0	
키프로스	2	1	65	106	54
포르투갈	1	2	35		
폴란드	90	27	22	55	39
프랑스	14	156	60	78	890
핀란드	0		0	3	8
헝가리	1	0	40	1	8

	2016	2017	2018	2019	2020
그리스	3	0	0	0	
네덜란드	365	367	756	218	1,062
덴마크	22	11	1	3	34
독일	144	208	283	723	732
라트비아		0		0	
루마니아	272	48	19	34	1
룩셈부르크	881	1,562	2,893	3,249	2,661
리투아니아			0	1	0
몰타			15		
벨기에	56	47	267	81	632
불가리아	0	0	0		
스웨덴	15	14	11	11	18
스페인	11	10	98	323	253
슬로바키아	9	63	22	32	23
슬로베니아	1	1	1	1	2
아일랜드	605	1,512	170	434	942
에스토니아			0		0
영국	939	1,367	2,587	2,225	1,088
오스트리아	6	46	1,254	3	5
이탈리아	9	11	59	271	31
체코	80	98	245	65	22
크로아티아				71	5
키프로스	15	0	16	15	0
포르투갈		39	0	6	1
폴란드	54	216	535	1,163	737
프랑스	67	97	488	1,843	290
핀란드	7	39	4	1	20
헝가리	40	13	394	740	328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1.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EU 경제권의 국가별 투자유입실적(도착 기준)을 살펴보면(〈표 4〉 참조), 2011~2015년 기간 투자규모(누계 기준)가 10억 달러 이상인 국가는 네덜란드·룩셈부르크·몰타·독일·영국·프랑스(6개국)이며, 1억~10억 달러인 국가는 아일랜드·스웨덴·이탈리아(3개국)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덴마크·루마니아·벨기에·불가리아·스페인·오스트리아·체코·키프로스·포르투갈·폴란드·핀란드·헝가리(13개국)는 1억 달러 미만의 저조한 투자실적을 보였으며, 라트비아·리투아니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에스토니아·크로아티아(6개국)는 우리나라에 전혀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동 기간 중 우리나라에 대한 EU 경제권의 투자비중

(<표 1> 비교)이 10% 이상인 국가는 네덜란드(26.9%), 룩셈부르크(16.8%), 몰타(16.3%), 독일(11.6%)이며, EU-Big5(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스페인)의 투자비중은 독일 11.6%, 프랑스 5.5%, 영국 6.8%, 이탈리아 1.0%, 스페인 0.3%로 독일을 제외하고는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2016~2020년 기간, 투자규모(누계 기준)가 10억 달러 이상인 국가는 몰타·네덜란드·영국·스페인·독일·프랑스·아일랜드(7개국)이며, 1억~10억 달러인 국가는 룩셈부르크·이탈리아·헝가리·스웨덴(4개국)으로 집계되었다. 동 기간 중 덴마크·라트비아·루마니아·리투아니아·벨기에·슬로바키아·에스토니아·오스트리아·체코·키프로스·포르투갈·폴란드·핀란드(13개국)는 우리나라에 대해 1억 달러 미만의 저조한 투자실적을 보였으며, 그리스·불가리아·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4개국)는 우리나라에 전혀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2016~2020년 기간, 우리나라에 대한 EU 경제권의 투자비중(<표 1> 비교)이 10% 이상인 국가는 몰타(34.8%), 네덜란드(20.9%), 영국(17.9%)이며, EU-Big5의 투자비중은 독일 5.5%, 프랑스 5.2%, 영국 17.9%, 이탈리아 0.8%, 스페인 5.8%로 영국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2011~2015년 기간과 2016~2020년 기간을 비교해보면, 2016~2020년 기간, 투자실적이 5억 달러 이상 증가한 국가는 몰타·영국·스페인·네덜란드(4개국)이며, 투자실적이 5억 달러 이상 감소한 국가는 룩셈부르크·독일·스웨덴(3개국)으로 분석된다. 2011~2020년 기간, 우리나라에 대한 EU 경제권의 투자실적에서 투자비중(누계 기준)이 10% 이상인 주요 투자대상국에는 몰타·네덜란드·영국(3개국)이며, 몰타·네덜란드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표 4〉 우리나라에 대한 EU 경제권의 국가별 투자유입실적 추이(2011~2020년)

단위: 백만 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그리스				0	
네덜란드	799	548	768	557	2,298
덴마크	24	13	14	6	1
독일	935	368	249	292	302
라트비아					
루마니아		0			
룩셈부르크	27	247	722	1,922	184
리투아니아					
몰타	239		1,100	460	1,221
벨기에	28	11	25	3	32
불가리아		1	0		0
스웨덴	79	205	111	269	8
스페인	25	6	11	8	7
슬로바키아					

	2011	2012	2013	2014	2015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65	268	77	444	19
에스토니아					
영국	235	264	99	369	288
오스트리아	7	8	6	13	9
이탈리아	30	7	45	36	60
체코					0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0	0
포르투갈	34	1	1		
폴란드			4	1	1
프랑스	146	220	300	229	119
핀란드	2	0	26	3	5
헝가리	25				0

  

	2016	2017	2018	2019	2020
그리스					
네덜란드	1,083	1,462	294	2,323	536
덴마크	4	3	3	14	29
독일	207	411	103	452	328
라트비아			1	0	
루마니아				1	
룩셈부르크	162	220	147	120	181
리투아니아		0	0	0	
몰타	1,541	1,963	2,356	1,541	2,077
벨기에	5	65	14	11	1
불가리아					
스웨덴	2	25	40	49	42
스페인	176	7	1,389	3	10
슬로바키아	0	0	0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293	242	310	174	20
에스토니아		13	13		
영국	207	1,939	285	1,997	443
오스트리아	1	7	0	4	73
이탈리아	35	60	8	53	51
체코	1	0	0	0	0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0	4	1	0	
포르투갈	0	0			
폴란드			1		
프랑스	136	279	639	92	125
핀란드	5	13	2	5	4
헝가리				312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1.

### 3) 산업별 투자동계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산업별(KSIC 기준, 34업종)<sup>5)</sup> 투자유출실적(투자금액 기준)을 살펴보면(<표 5> 참조), 2011~2015년 기간, 투자규모(누계 기준)가 10억 달러 이상인 산업은 광업/금융 및 보험/부동산/도소매/전문, 과학 및 기술/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6업종)이며, 1억~10억 달러인 산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건설/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공급/기타 기계 및 장비/운수 및 창고/정보통신/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섬유제품/기타 운송장비(11업종)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농업, 임업 및 어업/가구, 가방 및 신발/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금속가공제품/비금속 광물제품/식료품/1차 금속/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전기장비/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숙박 및 음식점/예술, 스포츠 및 여가/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산업(15업종)에 대해서는 1억 달러 미만이었으며, 가구/음료(2업종)에 대한 투자는 전혀 없었다.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비중(<표 1> 비교)이 10% 이상인 산업은 광업(27.0%), 금융 및 보험(19.8%), 부동산(12.9%)이며, 우리나라의 주요 해외직접투자산업(광업/금융 및 보험/부동산/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에 대한 투자비중은 66.5%<sup>6)</sup>로 우리나라 투자실적에서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비중이 17.8%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20년 기간, 투자규모(누계 기준)가 10억 달러 이상인 산업은 금융 및 보험/부동산/자동차 및 트레일러/도소매/전기장비/건설/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공급(7업종)이며, 1억~10억 달러인 산업은 기타 기계 및 장비/전문, 과학 및 기술/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광업/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정보통신/화학물질 및 화학제품/기타 운송장비/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운수 및 창고/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12업종)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농업, 임업 및 어업/가구/가족, 가방 및 신발/금속가공제품/비금속 광물제품/식료품/섬유제품/1차 금속/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음료/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5) 우리나라에 대한 EU 경제권의 투자실적에서 집계한 산업분류(<표 6> 참조)와는 일치하지 않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에 의한 업종분류를 최대한 준용하여 작성했다.

6) 2011~2015년 기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실적(누계 기준)에서 석유, 원유 및 천연가스/금융/부동산/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48.7% 수준이었다.



숙박 및 음식점/예술, 스포츠 및 여가 산업(15업종)에 대해서는 1억 달러 미만의 투자실적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비중(<표 1> 비교)이 10% 이상인 산업은 금융 및 보험(36.4%), 부동산(22.9%)이며, 투자비중이 10% 미만이지만 2011~2015년에 비해 투자실적이 급증한 자동차 및 트레일러에 대한 투자비중은 9.3%를 기록했다. 2016~2020년 기간, 우리나라의 주요 해외직접투자산업(금융 및 보험/부동산/도소매/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자동차 및 트레일러)에 대한 투자비중은 74.2%로 우리나라 투자실적에서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비중이 14.7%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2011~2015년 기간과 2016~2020년 기간을 비교해보면, 2016~2020년 기간, 투자실적이 5억 달러 이상 증가한 산업은 금융 및 보험/부동산/자동차 및 트레일러/전기장비/건설/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공급/도소매/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8업종)이며, 투자실적이 5억 달러 이상 감소한 산업은 광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전문, 과학 및 기술(3업종)로 나타났다. 2011~2020년 기간, 우리나라에 대한 EU 경제권의 투자실적에서 투자비중(누계 기준)이 10% 이상인 주요 투자산업은 금융 및 보험/부동산(2업종)으로 집중되었다.

<표 5>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산업별 투자유출실적 추이(2011~2020년)

단위: 백만 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농업, 임업 및 어업	3			1	2
광업	1,512	357	1,359	1,045	359
가구					
가죽, 가방 및 신발					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	4	5	2	3
금속가공제품	5	6	2	0	1
기타 기계 및 장비	89	59	11	50	99
비금속 광물제품			4		
식료품		0	0	5	1
섬유제품	150	0	0	0	
1차 금속		0	6	9	1
기타 운송장비	33	11	2	2	75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1	2	15	2	3

7) 2016~2020년 기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실적(누계 기준)에서 금융/부동산/도소매 및 상품중개/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59.5% 수준이었다.

	2011	2012	2013	2014	201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0	5	2	11	2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55	78	24	10	4
음료					
자동차 및 트레일러	70	180	363	75	71
전기장비	6	0	4	3	3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714	204	196	48	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0	28	77	59	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0	0	42	44	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56	17	5	31	84
금융 및 보험	281	1,479	635	691	298
도소매	141	540	264	204	155
부동산	26	5	439	629	1,10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1	1	3	2	1
숙박및음식점	3	1	1	6	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0		0	1	2
운수 및 창고	114	28	65	23	37
전문, 과학 및 기술	344	291	167	394	42
정보통신	5	32	72	64	36
건설	77	265	15	27	1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공급	69	128	89	66	3

	2016	2017	2018	2019	2020
농업, 임업 및 어업	1	14	9	6	1
광업	381	174	29	6	19
가구		0	8	2	0
가죽, 가방 및 신발	0	1	0	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9	84	181	309	5
금속가공제품	9	14	9	9	11
기타 기계 및 장비	46	54	41	539	72
비금속 광물제품					0
식료품	6	11	16	3	1
섬유제품	0	0		20	24
1차 금속	3	0	7	7	52
기타 운송장비	265	0		0	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19	164	1	9	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6	4	25	7	1

	2016	2017	2018	2019	2020
음료				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5	302	1,791	964	545
전기장비	39	64	385	681	49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7	57	10	28	5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0	1	0	1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0	9	3	2	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5	60	14	165	313
금융 및 보험	1,030	1,438	4,092	4,549	3,355
도소매	123	1,410	122	88	280
부동산	1,317	873	1,793	3,278	1,835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1	9	14	7	15
숙박및음식점	2	12	1	15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3	2	8	10	91
운수 및 창고	34	19	123	5	10
전문, 과학 및 기술	111	82	323	60	155
정보통신	44	83	281	32	128
건설	22	79	193	190	1,1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155	473	0	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공급		571	105	424	275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1.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EU 경제권의 산업별(KSIC 기준, 23업종) 투자유입실적(도착 기준)을 살펴보면(<표 6> 참조), 2011~2015년 기간, 투자규모(누계 기준)가 10억 달러 이상인 산업은 금융·보험/화공(화학제품)/비금속 광물제품/도소매(유통)(4업종)이었으며, 1억~10억 달러인 산업은 기계장비·의료정밀/전기·전자/연구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운송용 기계/섬유·직물·의류/부동산/식품/금속(가공제품)/의약/사업지원·임대/전기·가스(12업종)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농축임업/제지·목재/숙박·음식점/운수·창고/여가·스포츠·오락/종합건설(6업종)에 대해서는 1억 달러 미만의 투자실적을 보였으며, 수도·하수·환경정화(1업종)에 대한 투자는 전혀 없었다. 우리나라에 대한 EU 경제권의 투자비중(<표 1> 비교)이 10% 이상인 산업은 금융·보험(33.3%), 화공(화학제품)(18.4%), 비금속 광물제품(13.4%)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외국인직접투자산업(금융·보험/화공(화학제품)/도소매(유통)/정보통신)의 투자비중은 63.3%<sup>8)</sup>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실적에서 EU 경제권의 투자비중이 7.4%포인트 더 높은 것으

8) 2011-2015년 기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실적(누계 기준)에서 금융·보험/화공(화학제품)/도소매(유통)/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55.9% 수준이었다.

로 나타났다. 2016~2020년 기간, 투자규모(누계 기준)가 10억 달러 이상인 산업은 금융·보험/화공(화학제품)/도소매(유통)/운송용 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연구개발·과학기술(7업종)이며, 1억~10억 달러인 산업은 전기·가스/부동산/사업지원·임대/숙박·음식점/기계장비·의료정밀/금속(가공제품)/운수·창고/의약/수도·하수·환경정화/종합건설(10업종)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농축임업/식품/섬유·직물·의류/제지·목재/비금속 광물제품/여가·스포츠·오락(6업종)에 대해서는 1억 달러 미만의 투자실적을 보였다. 우리나라에 대한 EU 경제권의 투자비중(<표 1> 비교)이 10% 이상인 산업은 금융·보험(27.8%), 화공(화학제품)(21.1%), 도소매(유통)(12.0%)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외국인직접투자산업(금융·보험/화공(화학제품)/정보통신/운송용 기계/도소매(유통)/부동산)의 투자비중은 76.5%<sup>9)</sup>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실적에서 EU 경제권의 투자비중이 0.2%포인트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2011~2015년 기간과 2016~2020년 기간을 비교해보면, 2016~2020년 기간, 투자실적이 5억 달러 이상 증가한 산업은 화공(화학제품)/운송용 기계/도소매(유통)/금융·보험/전기·전자/정보통신/전기·가스/연구개발·과학기술(8업종)이며, 투자실적이 5억 달러 이상 감소한 산업은 비금속 광물제품(1업종)으로 나타났다. 2011~2020년 기간, 우리나라에 대한 EU 경제권의 투자실적에서 투자비중(누계 기준)이 10% 이상인 주요 투자산업은 금융·보험/화공(화학제품)/도소매(유통)(3업종)으로 집계되었다.

〈표 6〉 우리나라에 대한 EU 경제권의 주요 산업별 투자유입실적 추이(2011~2020년)

단위: 백만 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농축임업	0			2	
식품	114	114	15	39	26
섬유·직물·의류	1	205	73	87	0
제지·목재				15	
화공(화학제품)	608	187	165	408	2,033
의약	19	2	211	5	22
비금속 광물제품	8	51	514	1,906	0
금속(가공제품)	74	73	77	49	26
기계장비·의료정밀	134	64	45	179	145
전기·전자	152	303	20	15	76
운송용 기계	69	183	105	24	7

9) 2016~2020년 기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실적(누계 기준)에서 금융·보험/화공(화학제품)/정보통신/운송용 기계/도소매(유통)/부동산 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76.7% 수준이었다.

	2011	2012	2013	2014	2015
도소매(유통)	339	347	315	392	307
숙박·음식점	0	2	0	26	1
운수·창고	29	0	2	3	9
정보통신	90	18	274	31	27
금융·보험	900	1,220	1,269	1,063	1,713
부동산	59	65	164	26	4
사업지원·임대	4	52	21	125	8
연구개발·과학기술	44	21	259	176	27
여가·스포츠·오락	1	2	0	7	16
전기·가스	5	106	18	33	37
수도·하수·환경정화					
총 합 건 설	1	1	1	0	15

	2016	2017	2018	2019	2020
농축임업	51	0			
식품	6	79	3	1	11
섬유·직물·의류		12	0		0
제지·목재				0	3
화학(화학제품)	596	1,847	268	2,747	294
의약	1	217	1	3	0
비금속 광물제품		0	15	8	
금속(가공제품)	55	86	79	10	1
기계장비·의료정밀	129	59	47	29	147
전기·전자	94	943	144	227	284
운송용 기계	4	269	1,443	171	259
도소매(유통)	301	601	818	1,387	170
숙박·음식점	1	75	168	244	1
운수·창고	217	4	14	25	1
정보통신	668	278	140	187	180
금융·보험	1,252	1,465	1,849	972	2,037
부동산	351	73	41	86	92
사업지원·임대	30	39	354	27	40
연구개발·과학기술	18	476	82	182	309
여가·스포츠·오락	0	9	36	9	26
전기·가스	3		75	730	57
수도·하수·환경정화	54	148			
총 합 건 설	0	1	2	15	1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1.

## 2. 한-EU 투자통계의 주요 국가·산업별 비교분석

<표 3>, <표 4>, <표 5> 및 <표 6>에서는 한-EU 투자통계를 국가와 산업을 분리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산업(또는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국가)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EU 투자통계를 우리나라의 EU 경제권 또는 EU 경제권의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투자국가의 산업, 그리고 주요 투자산업에 대한 국가로 재분류하여 국가 및 산업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분석대상 기간인 2010~2020년,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유출실적 통계(<표 7> 상단)에서 투자금액(누계 기준)이 20억 달러 이상인 국가(백만 달러)는 룩셈부르크(13,285), 영국(11,014), 네덜란드(7,814), 아일랜드(5,488), 프랑스(3,983), 독일(3,097), 벨기에(2,284)로 조사되었다. 동 기간 중 20억 달러 이상인 산업(백만 달러)은 금융 및 보험(17,848), 부동산(11,298), 광업(5,241), 자동차 및 트레일러(4,466)로 집계되었다. 주요 국가·산업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EU 경제권에 대해 금융 및 보험은 룩셈부르크·영국·아일랜드·네덜란드, 부동산은 룩셈부르크·프랑스·영국, 광업은 네덜란드·영국, 자동차 및 트레일러는 독일 등에 주로 투자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는 EU 경제권에 대하여 룩셈부르크·영국 등의 국가와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등의 산업에 불균형적으로 투자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건수(법인 설립 기준)가 적은데 비해, 대형 투자규모(투자금액 기준)는 상대적으로 큰 편이어서 건당 투자금액은 비교적 크며, 일회성 투자(ad hoc investment)<sup>10</sup>도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광업(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2건, 11.9억 달러, 2013년), 아일랜드-금융 및 보험(1건, 7.9억 달러, 2020년), 벨기에-부동산(2건, 6.9억 달러, 2019~2020년)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EU 경제권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유입실적 통계(<표 7> 하단)에서 투자금액(누계 기준)이 20억 달러 이상인 국가(백만 달러)는 몰타(12,498), 네덜란드(10,668), 영국(6,126), 룩셈부르크(3,932), 독일(3,647), 프랑스(2,053)이었으며, 20억 달러 이상인 산업(백만 달러)은 금융·보험(13,740), 화공(화학제품)(9,153), 도소매(유통)(4,977), 운송용 기계(2,534), 비금속 광물제품(2,502), 전기·전자(2,258)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산업을 비교하면, 금융·보험은 몰타·네덜란드, 화공(화학제품)

10)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출거래와 비교해보면, 해외직접투자는 현지법인 설립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 국가에 대해 간헐적 형태의 거래행위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현지사업의 확장을 위해 증액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초기자본 투자로 투자가 종료되는 일회성 투자가 대부분이다.

은 네덜란드·영국, 도소매(유통) 및 전기·전자는 네덜란드, 비금속 광물제품은 룩셈부르크 등에 투자가 집중되었다.<sup>11)</sup> EU 경제권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몰타·네덜란드 등의 국가와 금융 및 보험, 화공(화학제품) 등의 산업에 투자가 불균형적으로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EU 경제권의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사례와 마찬가지로 건당 투자규모가 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룩셈부르크-비금속 광물제품(1건, 19.0억 달러, 2014년 및 1건, 5.1억 달러, 2013년), 네덜란드-화공(화학제품)(1건, 11.7억 달러, 2019년 및 3건, 18.4억 달러, 2015년), 몰타-화공(화학제품)(1건, 5.8억 달러, 2017년) 및 도소매(유통)(1건, 5.2억 달러, 2019년), 영국-화공(화학제품)(2건, 10.3억 달러, 2017년) 등이 EU 경제권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대형 투자사례다.

<표 7> 한-EU 주요 국가·산업별 투자통계 매트릭스(2011~2020년)

단위: 백만 달러

한국 → EU (FDI 유출)	룩셈부르크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벨기에
금융 및 보험	6,145	5,352	1,991	2,691	649	562	6
부동산	5,619	1,204	320	295	2,467	121	687
광업	714	1,191	3,121		0		
자동차 및 트레일러		9	102		143	553	

  

EU → 한국 (FDI 유입)	몰타	네덜란드	영국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금융·보험	9,599	1,115	895	258	750	489
화공(화학제품)	802	3,591	2,810	4	844	309
도소매(유통)	816	1,456	777	317	736	770
운송용 기계		74	57	100	690	168
비금속 광물제품			0	2,409	23	58
전기·전자	17	1,377	100	415	200	26

주: <표 3>, <표 4>, <표 5> 및 <표 6>의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재분류.

11) EU 경제권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요인에 대해서는 국가별 투자행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산업별 투자요인에 대해 모두 설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2011~2020년 기간,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국인 몰타의 경우 다국적기업에 의한 M&A 등 우회투자의 형태로 금융신탁 업종에 대한 투자가 집중된 것으로 추정된다(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확인).

### 3. EU 경제권의 FDI 유출입통계의 비교분석

한-EU FTA 발효 이후 EU 경제권의 FDI 유출입통계를 살펴보면(<표 8> 참조), 2011~2015년 기간, EU 경제권의 FDI 유입액(순투자 기준)은 전년에 비해 2011~2012년과 2015년에는 증가했으나 2013~2014년에는 감소했으며, FDI 유입액(누계 기준)은 연평균 4,190억 달러를 기록했다. 동 기간 중 EU 경제권의 FDI 유출액(순투자 기준)은 전년에 비해 2011년과 2014~2015년에는 증가했으나 2012~2013년에는 감소했으며, FDI 유출액(누계 기준)은 연평균 4,168억 달러로 나타났다. 2011~2015년 기간, EU 경제권의 투자수지(누계 기준)는 연평균 2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EU 경제권의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FDI 유입비중은 연평균 26% 수준이며, EU 경제권의 FDI 유입액이 EU 전체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2.4%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6~2020년 기간, EU 경제권의 FDI 유입액(순투자 기준)은 전년에 비해 2018~2019년에는 증가했으나 2016~2017년과 2020년에는 감소했으며, FDI 유입액(누계 기준)은 연평균 3,027억 달러를 기록했다. 동 기간 중 EU 경제권의 FDI 유출액(순투자 기준)은 전년에 비해 2016~2017년과 2019년에는 증가했으나 2018년과 2020년에는 감소했으며, FDI 유출액(누계 기준)은 연평균 3,638억 달러로 나타났다. 2016~2020년 기간, EU 경제권의 투자수지(누계 기준)는 연평균 61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EU 경제권의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FDI 유입비중은 연평균 19% 수준이며, EU 경제권의 FDI 유입액이 EU 전체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1.7%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1~2015년 기간과 2016~2020년 기간과 비교하면, EU 경제권의 FDI 유입액의 감소(연평균 1,163억 달러), FDI 유출액의 감소(연평균 530억 달러)(투자수지의 적자 반전), FDI 유입액의 EU 비중 하락(연평균 7%포인트), FDI/GDP 비중 하락(연평균 0.7%포인트) 등으로 나타나 EU 경제권의 FDI 유입실적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태다. 즉, EU 경제권의 GDP 규모(누계 기준)는 2011~2015년 연평균 17조 8,274억 달러에서 2016~2020년 연평균 17조 8,716억 달러로 442억 달러 증가(0.2%)하는 데 그쳤으며, 비교기간 중 경제성장률도 연평균 1.1% 수준에서 0.6% 수준으로 둔화된 점도 EU 경제권에서 FDI 유입실적이 위축된 현상을 입증해주고 있다. EU 경제권의 FDI 유입액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유출실적(누계 기준)(<표 1> 참조)은 2011~2015년 연평균 34억 달러에서 2016~2020년 연평균 79억 달러로 증가(132%)하면서 EU 경제권의 FDI 유입액의 감소현상과는 대비되는 추세를 보였다.



〈표 8〉 EU의 FDI 유출입통계 추이 및 비교분석

단위: 억 달러, %

		2011	2012	2013	2014	2015
FDI 유입액 (EU)		4,258	4,465	3,195	3,120	5,912
(EU/World, %)		(27.2)	(29.5)	(22.4)	(22.2)	(29.1)
(FDI/GDP, %)		(2.3)	(2.6)	(1.8)	(1.7)	(3.6)
FDI 유출액 (EU)		4,917	3,517	2,729	2,830	6,849
한국	FDI 유입액	98	95	128	93	41
	(FDI/GDP, %)	(0.8)	(0.7)	(0.9)	(0.6)	(0.3)
FDI 유출액		297	306	284	280	237
EU	GDP	183,823	173,075	181,508	187,898	165,067
	경제성장률	1.8	-0.3	0.0	1.7	2.5
환율(유로/달러)		0.72	0.78	0.75	0.75	0.90

  

		2016	2017	2018	2019	2020
FDI 유입액 (EU)		3,615	3,015	3,474	3,803	1,229
(EU/World, %)		(17.5)	(18.3)	(24.2)	(24.9)	(12.3)
(FDI/GDP, %)		(2.2)	(1.7)	(1.9)	(2.0)	(0.7)
FDI 유출액 (EU)		4,484	5,118	3,453	4,552	583
한국	FDI 유입액	121	179	122	96	92
	(FDI/GDP, %)	(0.8)	(1.1)	(0.7)	(0.6)	(0.6)
FDI 유출액		299	341	382	352	325
EU	GDP	166,491	173,411	187,676	185,780	180,221
	경제성장률	2.1	3.0	2.3	1.7	-6.1
환율(유로/달러)		0.90	0.89	0.85	0.89	0.88

주: UNCTAD의 FDI 유출입 통계는 순투자(Direct Investment, Net Incurrence of Liabilities) 기준.

출처: UNCTAD 2021; European Commission 2021a; European Commission 2021b.

#### IV. 결론 및 시사점

한-EU 투자통계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2011~2015년 기간,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유출실적은 171억 달러, 투자유입실적은 185억 달러로 투자수

지는 1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6~2020년 기간에는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유출실적이 397억 달러, 투자유입실적은 272억 달러로 투자수지는 125억 달러 적자로 전환되었다. 한편, 한-미 FTA 발효(2012년 3월) 이후의 투자실적과 비교하면, 2011~2015년 기간, 우리나라의 미국(EU 경제권)에 대한 투자유출실적(누계기준)은 322억 달러(171억 달러)로 2006~2010년의 177억 달러(171억 달러)에 비해 81.6%(+0.1%) 증가했으며, 미국(EU 경제권)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유입실적은 74억 달러(185억 달러)로 2006~2010년의 41억 달러(209억 달러)에 비해 81.5%(-11.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20년 기간, 우리나라의 미국(EU 경제권)에 대한 투자유출실적은 707억 달러(397억 달러)로 2011~2015년에 비해 119.3%(+131.8%) 급증했으며, 미국(EU 경제권)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유입실적은 90억 달러(272억 달러)로 2011~2015년에 비해 21.5%(+47.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20년 기간, 우리나라 투자실적(총투자금액 기준)에서 한-EU 경제권의 투자비중은 투자유출기준 14.0%, 투자유입기준 37.1%, 한-미 투자비중은 투자유출기준 25.3%, 투자유입기준 13.4%로 나타나 우리나라는 EU 경제권에 대하여 투자유출비중보다는 투자유입비중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11~2020년 기간 한국과 EU의 FDI/GDP 비중을 비교하면(<표 8> 참조), 우리나라는 연평균 0.7%로 EU 평균치(2.1%)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EU 투자통계에서 나타난 국가별 및 산업별 투자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실적(FDI outflows)의 경우 2011~2015년에는 네덜란드·영국·룩셈부르크·아일랜드 등의 국가, 광업,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등의 산업에 집중되었으며, 2016~2020년에는 룩셈부르크·영국 등의 국가,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등의 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EU 경제권의 외국인직접투자실적(FDI inflows)의 경우 2011~2015년에는 네덜란드·룩셈부르크·몰타·독일 등의 국가, 금융·보험, 화공(화학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등의 산업에 집중되었으며, 2016~2020년에는 몰타·네덜란드·영국 등의 국가, 금융·보험, 화공(화학제품), 도소매(유통) 등의 산업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EU 투자통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면, 한-EU FTA 발효 이후 양자간 투자실적의 연도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시현하지 못하고 있다. 한-EU FTA가 2011년 7월부터 잠정발효되면서 양자간 관세철폐율(품목 기준)을 5년 이내 99% 수준(한국: 99.5%, EU 98.7%)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2011~2015년 기간, 한-EU FTA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면서 상대

적으로 2016~2020년 기간에는 한-EU FTA 반영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1~2020년 기간에 걸쳐 한-EU 투자실적이 특정 국가(룩셈부르크, 영국, 네덜란드 등) 또는 특정 산업(금융·보험, 부동산 등)에 집중되는 경향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부연하면, 투자 리스크 분산 등을 통한 국가 및 산업 리스크의 관리 차원에서 투자대상 국가와 산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요인으로 GDP의 수요측면에서는 기업의 투자증대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국내기업의 투자활동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투자유입도 중요하다. 외국인직접투자(FDI inflows)는 산업간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노하우 및 기술 이전이 가능하므로 경제성장의 유의적인 기여요인이 될 수 있다(Javorcik 2004).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two-way fixed effect model) 등에서도 외국인직접투자가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효과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외국인투자 지분의 동일 산업내 및 산업간(후방) 파급효과)을 미친다는 분석결과(우천식 외 2003)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해외직접투자보다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수지 개선뿐만 아니라 GDP 증가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전략이 요구된다. 외국인직접투자(지사)는 이익의 중심(center of interests)이 해외(본사)에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 철수 등 경영활동의 불안정성이 우려되지만, 외국기업을 통한 투자유입은 국내기업의 체질 변화 및 대외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한-EU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2019)에서도 EU 경제권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결정에서 한-EU FTA 그 자체보다는 우리나라의 기업경영여건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면, 양자간 무역·투자 자유화가 진전되었다고 평가했지만, 외국인 소유지분의 허용수준, 외국인투자의 승인절차 및 회사설립 등 FDI 규제 및 자유화 수준<sup>12)</sup>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부연하면, EU 집행위원회의 보고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증대를 위해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투자유치에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GVC) 와해 등으로 투자철수(divestiture, divestment) 현상이 나타나면서 해외직접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이므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관한 정부 및 기업의 체계적인 추진전략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12) OECD FDI 규제제한지수(RR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 등에 관한 평가분석(Nicolas et al. 2013).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한-EU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실적과 EU 경제권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실적을 국가와 산업의 투자통계를 중심으로 2011~2020년 기간, 비교분석한 측면에서 선행연구와는 차별적인 분석 방법을 채택했다.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투자 통계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사례가 많지 않고, 한-EU FTA 경제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는 한-EU FTA 체결 이전에 예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경제적 분석에 치중한 경향이 있으며, 한-EU FTA 발효 이후의 양자간 투자자실적에 관한 연구도 2011~2015년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등에서 제기된 투자실적의 변동요인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점 등의 측면에서는 보완될 여지는 있으나, 한-EU FTA 발효 이후 FDI 유출입통계에 관한 국가와 산업의 실증적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투자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EU 경제권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실적이 더욱 제고되려면, 투자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권철우, 정봉걸. 2010.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과 투자대상국의 기업경영여건." 『한국경제연구』 28(4), 141-167.
- 김미아. 2016. "한-EU FTA의 FDI 확대효과." 『무역연구』 12(5), 641-653.
- 김성기, 서진교, 강한균. 2011. "한국의 대 EU 국가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1(2), 369-390.
- 김태황, 조정환. 2021. "한-EU 무역과 해외직접투자의 상관성 분석." 『EU학연구』 26(2), 47-66.
- 김홍중. 2005.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평가." 『국제지역연구』 9(3), 537-553.
- 박영렬, 양영수. 2011.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투자유형과 제도적 거리." 『국제지역연구』 15(3), 429-449.
- 이유태, 남현정. 2016. "EU 지역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FTA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유럽연구』 34(2), 123-156.
- 산업통상자원부. 2021. "외국인투자통계." <http://www.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 (2021/08/20 검색).
- 우천식, 김동석, 서중해, 차문중, 연태훈, 장하원, 윤윤규, 한광석. 2003. "한국의 산업경쟁력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3-07, 1-646.
- 전주성, 김혜미. 2018.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국가-산업 단위 패널 분석." 『국제통상연구』 23(3), 65-92.
- 조문희, 김영귀, 배찬권, 금혜윤, 엄준현. 2019.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17, 116-142.
- 조미진, 김태황. 2012. "한-EU FTA 발효에 따른 경제적 성과 분석." 『EU학연구』 17(1), 45-81.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1. "해외직접투자통계." <http://stats.koreaexim.go.kr/sub/totlStatistics.do> (2021/08/25 검색).

### 영문 자료

- Aliber, Robert Z. 1970. "A Theor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A Symposium*, edited by Charles P. Kindleberger, 17-34. Cambridge: MIT Press.

- Buckley, Peter J. and Mark Casson. 1976. *The Future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Palgrave Macmillan.
- Caves, Richard E. 1971. "International Corporations: The Industrial Economics of Foreign Investment." *Economica* 38(149), 1-27.
- \_\_\_\_\_. 1974. "Multinational Firms,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in Host-Country Markets." *Economica* 41(162), 176-193.
- Dunning, John H. 1981.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 \_\_\_\_\_. 1988. "The Eclectic Paradigm of International Production: A Restatement and Some Possible Extens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9, 1-31.
- Eiteman, David K. and Arthur Stonehill. 1989. *Multinational Business Finance* Reading: Addison Wesley.
- European Commission. 2021a. "European Economic Forecast." [http://ec.europa.eu/info/sites/default/files/economy-finance/ip149\\_en.pdf](http://ec.europa.eu/info/sites/default/files/economy-finance/ip149_en.pdf) (2021/05/13 검색).
- \_\_\_\_\_. 2021b. "Eurostat Database."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ubmitViewTableAction.do> (2021/09/05 검색).
-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2019.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ttp://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43612c84-ebf8-11ea-b3c6-01aa75ed71a1/language-en/format-PDF/source-231538124> (2021/09/24 검색).
- Hirsh, Seev. 1976. "An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Theory of the Firm." *Oxford Economic Papers* 28(2), 258-270.
- Horst, Thomas. 1972. "The Industrial Comparison of U.S. Export and Subsidiary Sales to the Canadian Market." *American Economic Review* 62(1/2), 37-45.
- Hymer, Stephen Herbert. 1976.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 A Study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Cambridge: MIT Press.
- Javorcik, Beater Smarzynska. 2004.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Domestic Firms? In search of Spillovers through Backward Linkages." *American Economic Review* 94(3), 605-627.
- Kindleberger, Charles P. 1963.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A Single Financial Center for Long-Term Cpital." *Weltwirtschaftliches Archive* Bd. 90, 189-210.
- \_\_\_\_\_. 1972. "Direct Investment in Less-Developed Countries: Historical Wrongs and Present Value." in *International Economics and Development*, edited by Luis Eugenio Di Marco, 387-402. Elsevier: Academic Press.
- Kogut, Bruce and Udo Zander. 1993. "Knowledge of the Firm and the Evolutionary Theory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4, 625-645.
- Kojima, Kiyoshi. 1978. *Direct Foreign Investment: A Japanese Model of Multinational Business Operations*. New York: Routledge.
- Lakatos, Csilla and Lars Nilsson. 2017. "The EU-Korea FTA: Anticipation, Trade Policy Uncertainty and Impact." *Review of World Economics* 153, 179-198.
- McDougall, G.D.A. 1960. "The Benefits and Costs of Private Investment Abroad: A Theoretical Approaches." *Economic Record* 1-193.
- Nicolas, Françoise, Stephen Thomsen and Mi-Hyun Bang. 2013. "Lessons from Investment Policy Reform in Korea." *OECD Working Paper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2013/02, 1-44.
- Rugman, Alan M. 2010. "The Theory and Regulation of Emerging Market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s from Emerging Market*, edited by Sauvart K.P., McAllister G. and Maschek W.A., 75-87.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UNCTAD. 2021. "World Investment Report." [http://unctad.org/system/files/official-document/wir2021\\_en.pdf](http://unctad.org/system/files/official-document/wir2021_en.pdf) (2021/09/05 검색).
- Vernon, Raymond. 1966.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0, 190-207.

Abstract

## **A Comparative Analysis of Bilateral FDI Statistics between Korea and EU after Implementation of the Korea-EU FTA**

Yang-Hyeon Jo ■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It is highly demanded that investment activities should be increased to get over depressed economic conditions and achieve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economic structural problems due to standstill consumption, constraint budget expenditure and sluggish exports under the Korean economy. In this regard, this paper is seeking to analyze comparatively investment statistics toward European Union (EU) economies which have been major economic cooperation partners with Korea, and suggest its policy implications.

In comparison with major precedent researches on factor analysi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determinants and economic effect for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FTA), this paper analyze empirically to compare by country and industry about FDI outflows and FDI inflows between Korea and EU economies during 2011-2020 after implementation of the Korea-EU FTA. The Korea-EU investment statistics indicates that FDI outflows of Korea toward EU economies were USD 17.1 billion, and FDI inflows of EU economies into Korea were USD 18.5 billion, so Investment Surplus recorded USD 1.4 billion during 2011-2015. In addition, FDI outflows of Korea toward EU economies were USD 39.7 billion, and FDI inflows of EU economies into Korea were USD 27.2 billion; hence Investment Deficit turned into USD 12.5 billion during 2016-2020. Summing up main features based on empirical analysis by country and industry about the FDI outflows of Korea toward EU economies,



there is evidence that major investments concentrate on not only Luxemburg and the United Kingdom by country, but also Finance and Real Estate by industry; As for the FDI inflows into Korea by EU economies, another major investments concentrate on not only Malta and the Netherlands by country, but also Finance and Chemical Engineering by industr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country and industry of bilateral investments in the empirical perspectives after implementation of the Korea-EU FTA. In particular, systematic policy and strategy by government and company to attract FDI inflow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ecause FDI inflows has been an essential contributor for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ransfer of know-how and technology, creation of production and employment, improvement of productivity, and so on.

Key Words: Korea-EU FTA, Korea-EU FDI Statistics, FDI outflows, FDI inflows

